

# 완주한지, 국가유산 활용사업 선정

8000만원 사업비 확보... 대송한지마을·송광마을 중심 한지 관련 유산 발굴·홍보키로

완주군이 지난 7월 대송한지마을과 함께 ‘완주한지로드를 찾아서’를 주제로 2026년 우리 고장 국가유산 생생 활용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1980년대 전국 최대 한지 생산지였던 송광마을을 중심으로 한지와 관련된 유·무형 유산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완주한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송한지마을이 소재한 소양면은 △국가사적 위봉산성, 웅치전적지 △명승 위봉폭포 △보물 송광사(7전), 위봉사 등 완주군의 주요 국가유산이 집중된 지역이다.

송광사는 과거 송광마을 주민들에게 한지 제조 기술을 전수했으며, 위봉사에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한지 후불탱화가 남아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을 토대로 대송한지마을이 사업을 주관하며 완주한지의 가치 확산에 나선다.

남해경 대송한지마을 이사장은 “고려시대 송광사 스님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한지 제조 기술은 송광마을 주민들의 삶과 함께 이어져 왔



완주군이 지난 7월 대송한지마을과 함께 ‘완주한지로드를 찾아서’를 주제로 2026년 우리 고장 국가유산 생생 활용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

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완주한지의 전통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송한지마을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통 한지 사용 확대와 함께 한옥스테이를 활용한 스물웨딩, 칠순잔치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지와

한옥정원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026년 완주한지의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K-한지의 역사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며 “완주한지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전통 한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열재복 기자

## 온 가족 즐기는 한가위 민속놀이마당

국립전주박물관, 10월 3~7일 체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10월 3~7일 박물관 옥외프락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한가위 민속놀이마당’ 행사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는 박물관을 방문하는 귀성객 및 관람객들이 북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석절기와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상시 프로그램은 △옛 생활도구 및 사물놀이 체험 △쌍륙, 고무신 던지기, 공주머니 받기, 장치기 등(전래놀이 오감) △소원성취 나무에 소원 적어 걸어두기 체험으로 행사기간 내내 운영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 10월 3일 오후 3시 박물관 강당에서 ‘국악실내악단 초화’의 환경에 대한

교훈을 담은 〈국악아동극 ‘나는야 바다청소부’〉가 진행된다. 또한 10월 5일 우리의 춤과 문화가 담긴 ‘한국국악협회 전주시지부’의 〈진도복춤&부채춤〉, 10월 7일 ‘연희컴퍼니 유희’의 〈조선유랑연희〉 전통연희놀이와 각각 오후 3시부터 옥외프락에서 펼쳐진다.

체험 프로그램은 10월 5일과, 10월 7일에 △한가위 캐릭터 종출동 페이스페인팅 △떡메치기를 직접 해보고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달 토끼 LED 포토존을 운영하고, 10월 5일과 7일에는 한복을 입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박물관 캐릭터 USB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됐다. /장은성 기자

## 김제시, ‘읍면동 농악 발표회’ 성황리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0일 벽골제 단아비당에서 김제시 읍면동 농악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2개 읍·면·동 농악단과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을 달빛의 정취 속에서 김제 농악의 멋과 흥을 함께 즐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읍면동 농악단이 오랜 시간 갈고닦은 기량과 개성을 무대 위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며, 농악 특유의 신명과 각 지역의 색깔을 고스란히 담아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어 행사 중반에는

김제농악보존회의 특별 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장단과 화려한 연출로 관람객들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리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번 발표회 결과, 신풍동의 ‘신풍 한마음 농악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김제시 대표 자격으로 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지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제44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

김문영 김제농악보존회 회장은 “벽골제에서 울려 퍼진 농악가락이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



을 불어넣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제농악의 명맥을 잇고 더 많은 분들이 농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1부 ‘강패와 장구’ (27)

## 육중한 의문부호

- 오 상 근 -

동식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강 씨란 사람이 왜 아이를 키우려 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루이지는 미소를 지은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동식의 눈치를 살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이름이……?”

루이지는 미안한 얼굴을 하면서 동식을 쳐다봤다. 지금껏 일을 부러먹으면서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미안했던 것이다. “동식요, 강동식요.”

“아, 강 씨예요? 나하고 같은 강 씨네. 호호호. 그래서 그 강 씨는 분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강동식님을 볼 때부터 왠지 그분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동식님을 보면 그분이 떠올랐어요. 같은 강 씨라서 그랬나요? 호호호.”

루이지는 흘리는 투로 말을 했지만 동식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지 않으려 해도 그랬다.

“그 강 씨는 분, 고향이?”

“무장이라고 그랬어요. 무장면요.”

“무…… 장면요?”

루이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물어보는 동식을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다.

“왜요?”

“아, 아닙니다요. 허허허.”

동식은 얼떨결에 건달들의 상투어로 말을 뱉으며 웃었다. 하지만 루이지에게 대답한 것으로 아닌 게 아니었다. 육중한 의문부호가 동식의 뒷머리를 무겁게 눌러오고 있었다.

무거운 의문표 때문에 어떻게 승합차를 운전하여 호안마을로 돌아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호안마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부터 석정온천에 가서 온천에 몸을 담갔을 때까지, 루이지 수녀가 전해준 강 씨는 사람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동식은 무장면 출신이었다. 고창행복원에 남겨져 있는 그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어제 고창초등학교에서 만났던 강정근이란 사람이 생각났다. 그는 동식이 자신의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인 강남준이란 사람과 너무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강정근이 말한 강남준, 루이지 수녀가 말한 강 씨는 성을 가진 사람과 동식이 무장면 출신이라는 점들이 삼각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동식은 서른다섯 해를 살아오는 동안 부모를 찾아보겠다고 마음 먹어본 적이 없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고아원에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하나라도 더 입에 밀어 넣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나은 잠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바빴고, 고아원을 나와서는 역시 먹고 입고 잠잘 곳을 차지하려 다른 아이들과 아귀다툼을 버리느라 바빴다.

그러다 소년원에 들어갔고, 소년원에서도 역시 남들보다 더 먹고 입고 좋은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느라 바빴다.

스무 살이 되어서부터는 건달이 되었고, 건달 식구들과 살아가면서 굳이 부모나 형제가 없어도 후배가 동생이 되고 선행가 형이 되었으므로 가족은 필요 없었다.

게다가 건달 식구들을 위해 싸웠고 뺨에 가느라 분주했음으로 역시 부모를 찾을 시간이 없었다.

건달이 되면 자의든 타의든 친형제나 부모보다 건달 식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그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거의 없어 부모나 친형제들을 만날 일도 거의 없다.

그러니 굳이 부모나 친형제를 찾을 이유가 당장 필요치 않은 것이다. 동식은 그렇게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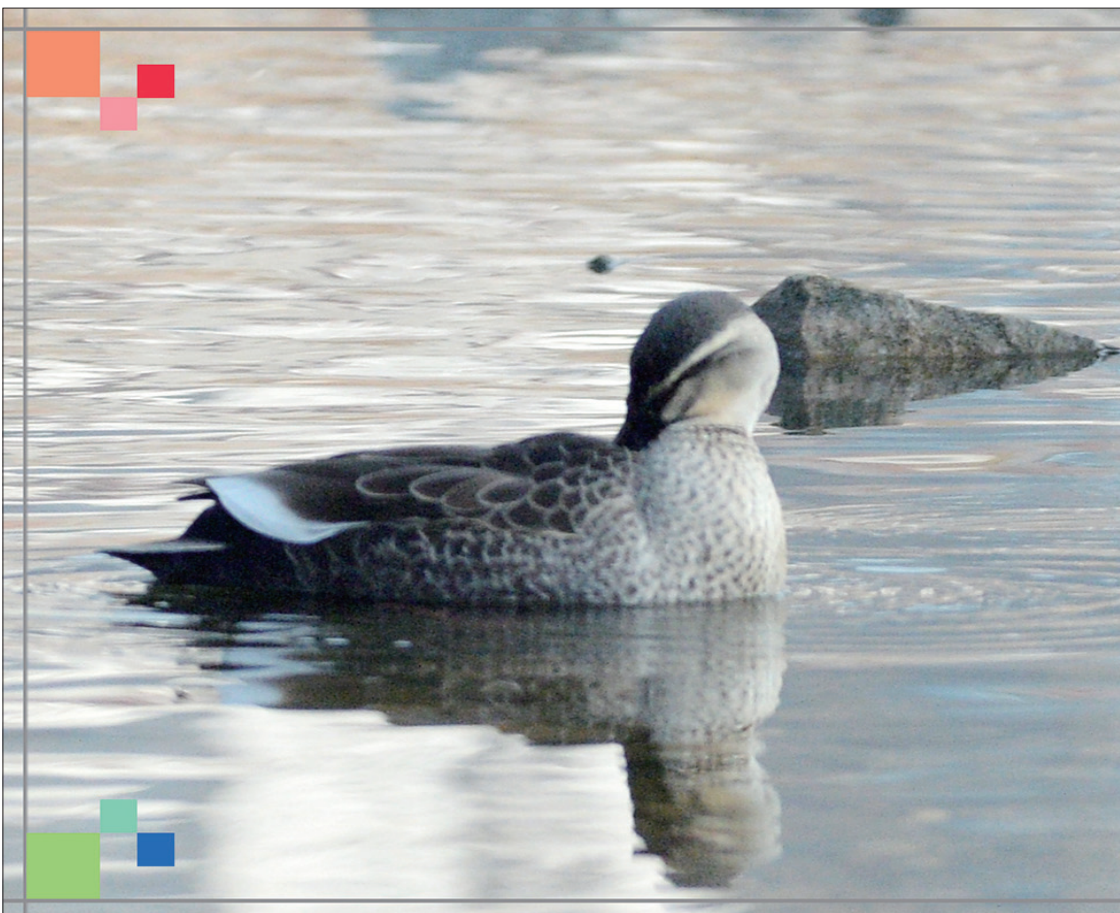
그런데 나이가 들고 조직 생활에 적응을 느끼면서 사람다운 삶이 대체 어떤 꼬라서니인가 싶어 기웃거리려고 싶은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굳히면서 동식은 운전장에서 몸을 일으켰다.

## 전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작품 공모

(사)전주영상위원회는 ‘2025 전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사업의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유 소재의 장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편 내외의 작품에 총 지원금 2,100만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공모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나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제작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0월 6~10일까지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jt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onjic@jtc.or.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무국(063-286-0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